Vol 2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0 경남사회서비스 BRIEF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 **발행인**: 이성기 | **발행처**: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ISSN 2733-9181 [온라인용]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

공공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체계구축의 사례와 전망 [1)]

김익중 |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장(hotaz@gn.pass.or.kr)
박해긍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책임연구원(haeg@gn.pass.or.kr)

| 본 연구노트의 목적

-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경남지역에서 수행해온 다양한 사업내용들을 개괄해보고 각 사업이 갖는 의미와 어려웠던 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함
- 더 나아가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착근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함

I 서론

'커뮤니티케어'는 전 세계적으로 보건・복지・주거 등 매우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오랫동안 언급되어왔다. 인류의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의 속도, 전 세계적 경제침체의 장기화, 탈시설화 패러다임 등과 맞물려 커뮤니티케어는 상당 기간 우리 사회의 핵심주제어가 될지도 모른다(신영전, 2018:5-6).

1) 본 브리프 2호는 2020년 10월 29일(목) 제3차 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에서 발표된 『경남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케어』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커뮤니티케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배경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그리고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광화문 농성장 방문 후 탈시설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하면서 소위 탈시설화 프레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건, 돌봄수요의 급증, 얼어붙은 고용시장 등 현재 우리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다양한 시대정신에 부응하기에 적합한 체계였기 때문이다(김용득, 2018:493). 이러한 배경 하에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을 선언한 후 2019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커뮤니티케어를 반영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커뮤니티케어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전윤미・강기정, 2019).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케어'가 필요한 주민(예:노인, 장애인 등)들이 시설에 수용된 느낌에서 개개인의 욕구가 존중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개념정의된다(황정하, 2019). 특히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요소는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Care in the Community), 둘째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 셋째 지방분권화(decentralized Community)인데, 풀어 설명해보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은 시설위주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의 탈피를 의미하는 탈시설화, 시설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편의를 높이고, 욕구 충족에의 포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 가족, 이웃,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부문 등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 '지방분권화' 는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게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2019:14). 요컨대 서비스 이용자인 지역주민의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를 이해해보면, '지역주민이 그가 살던 지역사회에서 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집 혹은 일시주거시설(중간집) 등에서 다양한 돌봄주체(공공, 민간, 가족, 이웃 등)에 의해 돌봄을 받으며, 그 지역의 돌봄과 관련한 체계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됨'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한편 경상남도도 이러한 커뮤니티케어 체계의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사회서비스원이 커뮤니티케어센터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케어센터의 초기모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영역을 통합・제공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고성군 회화면, 의령군 부림면, 창원시 동읍 3개 지역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사천시 동서동, 하동군 옥종면, 거창군 가조면 등의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확장하는 등 커뮤니티케어의 모형을 경상남도 관내 전 시군(읍면동)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 중에 있다.

특히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이하 경남센터)는 커뮤니티케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일선에 있다. 경남센터는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종합재가센터를 직영하여 직접 서비스의 제공자에서 사례관리 연계까지 하나의 조직체계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돌봄 시스템의 마련, 둘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케어 참여 기반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 셋째 공공 보건의료-복지 대상자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넷째 교육・컨설팅 지원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 직접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에서부터 지역자원동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조직가, 공공과 보건의료 영역의 매개자 역할,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력자로 역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 고는 경남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경남지역에서 수행해온 다양한 사업내용들을 개괄해보고 각 사업이 갖는 의미와 어려웠던 점, 개선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착근되기(embedded)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와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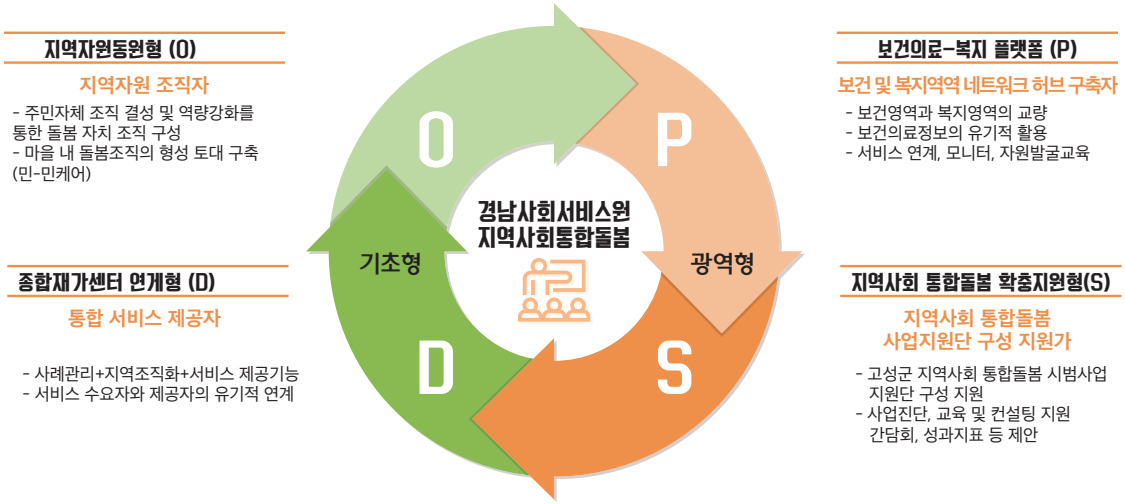
Ⅱ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의 기능과 역할

1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 기능의 요약

경남센터는 크게 ① 종합재가센터 연계(Direct Service Provider) ② 지역자원동원(Organizer) ③ 보건의료복지 플랫폼 구축(Platform Maker) ④ 확충지원(Supporter) 등의 4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각 사업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2]

<표 1>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의 기능

유형 / 항목	종합재가센터 연계형 (Direct service provider)	지역자원동원형 (Organizer)	보건의료복지 플랫폼형 (Platform maker)	커뮤니티케어 확충지원형 (Supporter)
	기초형 [3]		광역형	
목적	•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문제해결 및 삶의 질 향상	• 민-관-학 협력을 통한 거점형(농촌형/도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기반 마을주민 주도 돌봄문화 형성	• 경남道 내 공공보건의료시설 퇴원환자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지역 내 재활서비스 연계 책무성, 신속성, 효과성 증진	• 경남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6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확충지원체계 마련 • 지역맞춤형사업운영방향성 자문
사업내용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심층상담, 사례회의, 서비스 연계, 자원발굴, 네트워킹) • 돌봄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홍보활동	• 마을거점 발굴 및 주민돌봄 위원 조직활동 • 가야대학교 재활복지특성화 사업단 협력체계 구성 및 역량강화 활동 • 서비스 연계, 긴급돌봄활동 등	• 보건의료정보의 커뮤니티센터 보유기능 • 전문의료정보의 재가공 (욕구분석) • 환류를 통한 재사정 및 재연계 (민간), 돌봄자원 발굴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 지원단 구성, 교육, 간담회, 컨설팅, 벤치마킹 지원
커뮤니티 케어센터의 역할	•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 자원발굴, 모니터링, 교육, 조정 등	• 주민조직, 교육, 서비스연계	•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 자원발굴, 교육	• 교육, 컨설팅, 중개
자원출처	• 국비 • 도비 • 사회서비스원	• 시비 • 사회서비스원 • 가야대학교	-	• 도비 • 시군비
참여지자체	• 김해, 창원	• 김해	• 경남道 전역	• 경남 6개 시군



<그림1>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의 기능

2) <그림1>은 4가지 사업의 유형을 도식으로 정리해 본 것이다.
3) 광역 · 기초융합형

2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의 기능

경남센터가 지금까지 해온 기능 및 역할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재가센터 연계형 (Direct service provider)

⑴ 종합재가센터 연계형의 의의

종합재가센터 연계형은 노인을 위한 사례관리적 측면의 기능과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기능을 융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통상 사례관리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목록을 가지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차원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종합재가센터 연계형은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를 돌봄 자원으로 보다 접근성이 높게 가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사례관리에서 어려운 점은 지역사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총량이 작다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서비스 제공자와 연결자의 기능이 하나의 체계 내에서 작동된다면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고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덧붙여 종합재가센터가 공공기관에서 직영되기 때문에 민간 사례관리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보다 책임성있게 돌볼 수 있다.

⑵ 종합재가센터 연계형 개요와 성과

경남센터는 2019년 11월 김해시 종합재가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김해시 커뮤니티케어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모델로 시작되었다. 이후 기초형에서 광역형인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0년 5월에는 종합재가센터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020년 1월부터 시군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주민센터, 종별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굿네이버스, 가족상담연구소 등 22곳과 MOU를 체결하였다.

그간 1년 간의 성과로는 총 104건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제공, 총 9회 대상자 사례회의 및 통합운영 매뉴얼 제작, 총44회의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노인맞춤돌봄서비스 41회, 정신건강복지센터 1회, 노인복지관 및 관할 주민센터 1회, 위기 개입 1회), 총 9회의 지역케어회의, 총 7회의 읍면동 실무자 간담회, 2회의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보건안전도시분과, 사례관리분과, 노인분과)을 추진해오고 있다.

[2] 지역자원동원형(Organizer)

⑴ 지역자원동원형의 의의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지역사회조직화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의 돌봄 수요를 공공의 자원과 역량만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자원화하는 지역조직화는 국가 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회복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의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민간기업,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단체, 지역NGO, 지역사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행위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동등한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황명주 · 김형수, 2019:209-210)”으로 개념정의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자원을 하나로 엮어서 이를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동원의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 그리고 이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이 본 모형에서는 더욱 중요한 기능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커뮤니티케어가 서비스 제공자, 즉 공급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이용자 역시 돌봄서비스 공급과정의 주요한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⑵ 지역자원동원형의 개요와 성과

커뮤니티케어 영역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남센터가 수행한 과업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해시에서의 협력사례를 들 수 있다. 초창기 기초지자체인 김해시와 2019년 11월에 공동협력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초기상담 및 재가서비스연계지원(식사지원, 병원동행 등)을 22사례 발굴하였고, 농촌마을 어르신 함께 돌봄 사업을 통해 김해시 생림면 생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서비스를 28사례 연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림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생철마을의 주민돌봄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이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2019년 12월에는'가야대 재활복지특성화사업단'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 학교를 커뮤니티케어 체계에 포함하였다.

지역자원동원형의 의의 중 다른 하나는 김해시라는 도농복합형 지역의 특성을 본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김해시의 지역을 크게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했고 이에 따른 거주 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표2> 참조). 지역조직화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마을주민들을 마을의 돌봄조직의 리더로 만들기에는 다소 시간적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마을 주민의 참여 동기강화, 마을 내 주민 상호돌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작업들을 통해 도시, 농촌형 마을돌봄 공동체 조직이 자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2> 김해시 지역자원동원(주민참여형) 사례

분류	도사형	농촌형
대상지역	김해시 부원동 남지경로당	생림면 생철마을 마을회관
주민조직	경로당 임원 5명,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정)	마을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주민대표 15명
서비스 유형	• 우울노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정신과전문병원 진료지원, 김해시 종합재가센터 노인특화프로그램 연계)	스마트홈 구축, 주거환경개선, 식사지원, 병원동행, 재가지원 등
참여한 주요 민간기관	• 가야대학교 재활복지특성화 사업단	

[3] 커뮤니티케어 확충지원형(Supporter)

(1) 커뮤니티케어 확충지원형의 의의

경상남도를 포함한 전 국가적으로 커뮤니티케어는 도입이 막 시작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각 기초지자체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지수준,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므로 각 기초지자체의 주요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진단 등의 자문가의 역할과 행정지원 등의 조력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경남센터는 각 기초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 진단 등을 통해 각 기초지자체가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supporter)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19년 8월 고성군 사례이다.

(2) 커뮤니티케어 확충지원형의 개요와 성과

확충지원 사업은 2019년 8월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고성군과 MOU체결로 시작되었다. 주요 성과로는 같은해 11월에는 고성과 의령지역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과 업무지원을 하였고, 12월에는 시범사업 시/군 담당자 업무협력회의, 의령군의 시범사업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시범사업 지역담당자 대상 선진지 견학(광주 광산구 우산동, 전남 영광 모량 여민동락공동체)을 추진하였다. 2020년 5월에는 거창, 창원, 고성, 의령에 시범사업 컨설팅 및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교육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 과 같다.

<표3> 확충지원형 교육지원 내용

구분	일정	장소	교육내용/강사	
의령군	2019. 12.19.	의령군 보건소	-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지역사회 협업 방안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택근 교수	총 41명 의령군청, 읍면동주민 센터, 보건소 등
의령군, 고성군	2019. 12.23.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전남 영광 모량 여민 동락공동체	- 커뮤니티케어 성공사례 특강 (우산동-마을활력소) - 여민동락공동체 농촌지역 주민 조직화 사례 특강 - 평가회 및 간담회	총 12명 의령 5명, 고성 3명, 경남사회서비스원 4명
창원시	2020. 8.13.	창원시청 2층 시민홀	- 민관 사례관리사업 동반 성장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담당 (역량강화교육/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김영습 과장)	총 100명 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회복지유관기관 등

[4] 보건의료복지 플랫폼형(Platform maker)

⑴ 보건의료복지 플랫폼형의 의의

커뮤니티케어의 확충을 위해 가장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복지영역과 보건영역의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역할을 해줄 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경남센터가 추진해왔다. 경상남도 권역에서 보건영역과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로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었고, '복지와 의료분야의 플랫폼 역할과 의료와 복지의 분절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상호간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0년 9월 8일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망 사용을 승인받았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복지영역에서 퇴원환자와 관련한 정보를 획득해 돌봄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진주경상대학교병원과 뇌졸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협업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복지 플랫폼의 구축은 이제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보건과 복지영역 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

⑵ 보건의료복지 플랫폼형의 개요와 성과

복지와 보건영역의 협력은 2020년 5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업무회의를 시작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계획의 공유, 보건/복지의 협력모델 제시, 프로그램 개발 협조를 약속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진주경상대학교병원·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업무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소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업무협력 논의(공공의료연계망), 커뮤니티케어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협력을 시작하였다. 보건영역의 커뮤니티케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0년 6월 경남 공공보건의료 대상 커뮤니티케어 교육을 추진했고, 2020년 7월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의 주체와 함께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연계망 사용 승인과 함께 진주경상대학교병원 뇌졸중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Ⅲ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의 지금까지 역할, 그리고 가능성

커뮤니티케어, 어렴풋한 개념정의는 있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단정하여 말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런 개념적 카오스(chaos)상태가 주는 한계를 넘어 이를 현실(reality)의 세계로 구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경남센터가 시도한 4가지 유형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분절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업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이다. '경남도민이 살던 지역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남센터의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일 것이다.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의 노력들이 향후 새롭게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해 나갈 지자체와 이를 연구할 교수진들을 위한 초석이 되기 바란다.

커뮤니티케어가 더욱 단단한 체계가 될 수 있기 위해 제언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전히 커뮤니티케어를 낯설게 느끼는 지역주민,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 문제는 경남센터가 더욱 노력해야 함을 뜻하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에 더욱 힘을 쏟을 때 각 센터의 노력과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둘째 제한된 인력과 재원으로 한정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Garbage in Garbage out'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좋은 성과물이 나오기 마련이다. 동시에 그 양이 적다면 그 성과도 작을 수 밖에 없다. 현실적 수준의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고민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건의료영역과 복지영역 간 행정적 칸막이 현상이다. 이번 보건복지의료 플랫폼을 통해 그 경계를 허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영역의 담당자들이 원활한 상호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포럼 등의 계기가 자주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는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 2020년 전국 17개 광역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게 된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인지도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커뮤니티케어센터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현재까지 추진해온 사업이 더욱 밀도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20년 추진해온 보건과 복지영역의 협력관계의 시작이 밀알이 되어 이후에는 공공주도의 보건의료복지 융합 플랫폼을 바탕으로 서비스 연계의 책무성, 신속성, 효과성의 과실로 이어져 경남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2019), 『경남형 스마트케어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
-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보건사회연구』, 38(3):492-520.
- 신영전(2018),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성공의 전제", 『보건사회연구』, 38(4):5-9.
- 전윤미・강기정(2019), "빅데이터 기반의 커뮤니티케어 키워드 및 사회연결망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4(2):251-269.
- 황명주・김형수(2019), "지역사회조직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 방안: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2):207-227.
- 황정하(2019),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7-92.

| 저자 |

주저자 | 김익중(hotaz@gn.pass.or.kr)

- 사회복지학 석사
  -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센터 센터장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과장
- 前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前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교신저자 | 박해긍(haeg@gn.pass.or.kr)

- 사회복지학 박사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前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前 영신복지재단 사무국장

9 772733 915005 04
ISSN 2733-9157

※ 본 자료의 내용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http://gn.pass.or.kr TEL 055-328-8200 FAX 055-328-8240